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0권 제3호, 2009년 9월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0, No. 3, 269-276, September, 200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강경아[1] · 김신정[2] · 송미경[3]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1],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2], 경주시 흥무초등학교 보건교사[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i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ang, Kyung-Ah[1] · Kim, Shin-Jeong[2] · Song, Mi-Kyung[3]

[1]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School Nurse, Heungmu Elementary Schoo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i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Four hundred eighty fou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ir 4 ~ 6th-grade at S, G and C City were recruited by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October, 2008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WIN 12.0 program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Duncan'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meaning of life was 3.07 ± 0.38 and that of self-esteem was 3.43 ± 0.6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ccording to variables region and religion, and in meaning of life scores according to variables region, grade, sex and relig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Conclusio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for healthy develop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Self-esteem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content in developing programs for finding meaning of life for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School-age population, Self esteem, Lif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변화와 도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들은 현재 자신의 내면적 동기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급변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잉기대로 이어져 학령기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자기주관에 의한 선택보다는 성적향상과 성공만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Cho et al, 2003; Kim & Lee, 2004). 그 결과 진로에 대한 불안야기, 스트레스 해소 및 도피책으로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이로 인한 자기통제 및 현실 판단 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감소 등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8.1%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이용목적은 90.2%가 오락이나 게임에 치중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m & Han, 2001; Yoon & Park, 2006). 2000년 이후로 비행,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등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적저조 비관 등으로 인한 자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주요어 : 학령기,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2008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8.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Kyung-Ah,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6-21 Gongreung-2 dong, Nowon-gu, Seoul, 139-742, Korea. Tel: 82-2-3399-1585, Fax: 82-2-3399-1594, E-mail: kangka@syu.ac.kr

투고일 : 2009년 3월 5일 수정일: 2009년 9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14일

점은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Lee, 2005).

위와 같은 최근의 실태를 볼 때,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 등 자아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자아 주체적으로 심도 깊게 사색하며 숙고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본주의자들은 아동의 자기 성장 과정이 계속적으로 방해받거나 실패하게 될 때 자신의 존재감, 의미감을 상실하게 되고 부정적 자기평가 체제를 확립하게 되며, 자아 혼미를 경험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특징들이 아동에게 있어서 문제행동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Kim & Lee, 2004; Lim & Han, 2004).

학령기에 자신의 어떤 내적 기준이나 기대수준에 비추어 자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긍정적,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연결되며,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Han, Choi, & Park, 2004). 일반적으로 아동이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이나 사춘기에 들어서는 고학년부터는 자아평가가 엄격해 지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Kim, Kim, Son, Song, & Jung, 2004).

한편 Frankl(1988) 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실존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사춘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후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들로 옮겨가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발달 가능성 등을 잘 파악하여 독립적이고 풍부한 개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Cho, 2000).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아동은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적 여유와 환경적 여건이 허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 및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Song, Ahn, & Kim, 2002).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심리, 정신건강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라고 생각한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임상 및 지역사회 아동간호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간호중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초등학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 조사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의미 측정도구 개발연구가 수행되었을 뿐이며(Kang, Kim, Song, Sim, & Kim, 2007), Oh와 Lee(2004)가 학령기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가 시도되었을 뿐이다.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삶의 의미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의미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거주지역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S시(특별시), 경상북도 G시, 강원도 C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495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G시 거주 초등학생 220명, S시 거주 초등학생 180명, C시 거주 초등학생 9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8월 20일부터 10월 30일

까지 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각 지역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재차 설명하고 설문내용 및 자료수집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런 후 연구자는 담당교사와 함께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나누어주었으며 자가 기입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이내였으며 설문지는 495부가 배부되었으나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48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자아존중감 10문항, 삶의 의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 만족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느낌(Rosenberg, 1965)이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u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개발당시 test-retest reliability: .85)를 Jon(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느낌과 평가의 정도 및 자기 수용정도를 보는 긍정형, 부정형 문장이 각각 5개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적합한지 내용타당도 검증을 간호학 교수 및 보건교사 4인에게 실시하였고 각 항목에서 content validity index(CVI) 80% 이상의 결과를 보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 측정에 적합한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도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비만, 섭식장애, 신체증상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Sung(2005)의 연구와 학령기 입원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한 Oh와 Lee(2004)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82,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0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즉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주어진 삶의 특정한 이유이다(Frankl, 1988).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Kang 등(2007)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4문항의 삶의 의미 도구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이 도구는 관계적 경험 6문항, 긍정적 태도 6문항, 만족/희망 6문항, 목표추구 4문항, 가족사랑의 경험 2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1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Duncan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의 차이는 t-test와 ANOVA, Duncan 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84명으로서 거주하는 지역은 S 시가 175명(36.2%)이었고 G시는 214명(44.2%), C시는 95명(19.6%)이었다. 성별은 남아가 239명(49.4%), 여아가 245명(50.6%)이었고 학년은 4학년이 188명(38.8%), 5학년이 135명(27.9%), 6학년이 161명(33.3%)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74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교가 103명(21.3%), 무교가 84명(17.4%), 기타가 23명(4.8%)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첫째가 235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 199명(41.1%)이었고 셋째 이상인 경우가 50명(10.3%)이었다.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문항평균 3.43 ± 0.62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내가 다른 친구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72점이었고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3.62점의 순이었다. 반면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가 3.0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12점이었고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22점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The Degree of Self-Esteem of Subjects (N = 484)

No	Content	M ± SD
1	I think at least I am worthy like other friends	3.72 ± 1.06
2	I think I have many good characters	3.38 ± 1.04
3	I feel I failed almost	3.27 ± 1.53
4	I can work well most of other friends	3.62 ± 1.04
5	I don't have much to boast of	3.04 ± 1.25
6	I have positive attitude to myself	3.46 ± 1.05
7	I am satisfied with myself	3.87 ± 1.16
8	I would rather respect myself	3.62 ± 1.10
9	Sometimes, I think I am useless	3.22 ± 1.37
10	Sometimes, I think I am not good	3.12 ± 1.26
Total		3.43 ± 0.62

대상자의 삶의 의미 정도는 문항평균 3.07 ± 0.38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별 대상자의 삶의 의미는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가 3.69점이었고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 희망)이 있다'가 3.68점의 순이었다. 반면 '나는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가 2.3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가 2.70점이었고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행복하다'가 2.74점의 순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Meaning of Life of Subjects (N = 484)

No	Content	M ± SD
1	I rather have many goods than shorts	2.76 ± 0.67
2	I am a kind of person who are really important by my families and others	3.30 ± 0.72
3	I like my character	2.85 ± 0.83
4	I think I am popular among of my age friends	2.39 ± 0.74
5	I am satisfied my gender	3.43 ± 0.73
6	I think difficulties are always followed by good things	3.22 ± 0.76
7	I think everyday life depends on me	3.29 ± 0.72
8	I love my families surrounded me	3.77 ± 0.46
9	My families are loving me	3.69 ± 0.55
10	I have many memories to be happy	3.46 ± 0.68
11	I have truly loved somebody	3.14 ± 0.73
12	I want many things to do	3.52 ± 0.65
13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3.20 ± 0.73
14	With love, many difficulties can be overcome	3.00 ± 0.86
15	I have my purpose in life	3.68 ± 0.56
16	I am a kind of people who search out for work	2.85 ± 0.76
17	I am doing anything to accomplish my goal	3.21 ± 0.78
18	I have been faithfully devoted to my task	3.03 ± 0.67
19	I am doing what I always wanted to do	2.70 ± 0.86
20	I feel grateful for even very trivial matters	3.25 ± 0.66
21	I feel very grateful to be live	3.32 ± 0.73
22	I often smile	3.09 ± 0.78
23	I can help people who are poorer than me	2.87 ± 0.74
24	Even if I should die today, I am happy	2.74 ± 1.04
Total		3.07 ± 0.38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지역(F = 16.626, p = .000), 종교(F = 2.780, p = .04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로 사후분석을 한 결과 지역에 따른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특별시인 S시(M = 32.32)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경북 G시(M = 35.01)와 강원 C시(M = 36.40)의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지방도시인 G시와 C시 학생들 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M = 35.73)이 기독교와 불교 외 기타종교(M = 32.87)를 가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종교가 있는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삶의 의미는 지역(F = 9.975, p = .000), 학년(F = 11.199, p = .000), 종교(F = 4.400, p = .005), 성별(t = 20.136, p =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삶의 의미는 G시(M = 137.57)보다 S시(M = 143.33)와 C시(M = 145.12)의 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학생(M = 144.89)이 남학생(M = 137.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삶의 의미는 4학년(M = 145.92)이 5학년(M = 137.30)과 6학년(M = 139.65)에 비해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5학년과 6학년은 차이가 없었다. 종교는 기독교를 가진 학생(M = 143.77)의 삶의 의미가 기타 종교(M = 133.87)를 가진 학생의 삶의 의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484)

Variables	Categories	n (%)	Self-esteem				Meaning of life			
			M ± SD	F or t	p	D	M ± SD	F or t	p	D
Region	S city	175 (36.2)	32.32 ± 5.03			a	143.33 ± 16.77			b
	G city	214 (44.2)	35.01 ± 6.71	16.626	.000	b	135.57 ± 18.28	9.975	.000	a
	C city	95 (19.6)	36.40 ± 6.15			b	145.12 ± 16.08			b
Gender	Male	239 (49.4)	33.86 ± 6.56	2.494	.115		137.88 ± 18.29	20.136	.000	
	Female	245 (50.6)	34.75 ± 5.87				144.89 ± 16.06			
Grade	4th	188 (38.8)	34.87 ± 5.95				145.92 ± 16.57			b
	5th	135 (27.9)	33.64 ± 7.14	1.542	.215		137.30 ± 19.55	11.199	.000	a
	6th	161 (33.3)	34.22 ± 5.70				139.65 ± 15.68			a
Religion	Christian	274 (56.6)	33.79 ± 5.88			a, b	143.77 ± 16.02			b
	Buddhism	103 (21.3)	34.85 ± 6.93	2.780	.041	a, b	138.97 ± 19.71	4.400	.005	a, b
	Etc	23 (4.8)	32.87 ± 7.44			a	133.87 ± 21.55			a
	None	84 (17.4)	35.73 ± 5.88			b	138.89 ± 17.21			a, b
Sibling order	1st	235 (48.6)	34.72 ± 6.10				142.91 ± 17.71			
	2nd	199 (41.1)	33.98 ± 6.27	1.026	.359		140.76 ± 16.66	2.489	.084	
	≥ 3rd	50 (10.3)	33.70 ± 6.66				137.14 ± 19.48			

Table 4. The Relationship of Subjects'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N = 484)

	Meaning of life	Factor 1 Relational experience	Factor 2 Positive attitude	Factor 3 Satisfaction/ Hope	Factor 4 Persuit of goal	Factor 5 Experience of family love
Self-esteem	r = .577	r = .481	r = .433	r = .425	r = .395	r = .245
	p = .000	p = .000	p = .000	p = .000	p = .000	p = .000

4.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정도와의 상관관계

학령기 후기 아동들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Figure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의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 = .553, p = .000), 산점도를 확인해 본 결과, 산점도의 형태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를 각 요인별로 나누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각 요인들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삶의 의미 요인 1 '관계적 경험'(r = .481, p = .000), 요인 2 '긍정적 태도' (r = .433, p = .000), 요인 3 '만족/희망'(r = .425, p = .000), 요인 4 '목표 추구'(r = .395, p = .000), 요인 5 '가족 사랑의 경험'(r = .245, p = .000)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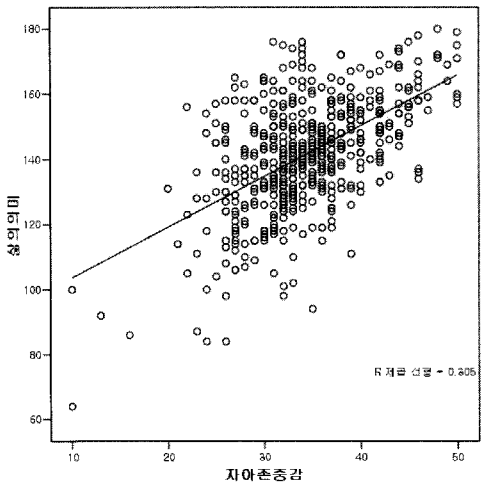

Figure 1. Scatter gram betwee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IV. 논 의

대상자의 삶의 의미 정도는 5점 척도 문항평균 3.07 ± 0.38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대상을 같은 측정도구로 연구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나 중학생 암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적용하여 삶의 의미를 측정한 Kang 등(2009)의 연구에서 실험군

Table 4. The Relationship of Subjects'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n = 484)

	Meaning of life	Factor 1 Relational experience	Factor 2 Positive attitude	Factor 3 Satisfaction/ Hope	Factor 4 Persuit of goal	Factor 5 Experience of family love
Self-esteem	r = .577	r = .481	r = .433	r = .425	r = .395	r = .245
	p = .000	p = .000	p = .000	p = .000	p = .000	p = .000

2.47, 대조군 2.52로 나타나 건강한 학령기 아동이 중학생 말기 암환자에 비해 높은 삶의 의미정도를 보임이 파악되었다. 대상자의 문항별 삶의 의미에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 문항은 상위 2개 문항으로 나타나 모두 가족 사랑의 경험요인에 해당하였다. 이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경험에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위 2개 문항은 관계적 경험에 해당되는 '나는 같은 학년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와 목표추구요인의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로서 현 초등학생들의 긍정적인 친구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자신의 재능과 의지에 따른 장래희망과 목표추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문항평균 3.43 ± 0.62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Rosenburg(1965)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Sung(2005)의 연구에서는 정상체중 아동의 경우 평균 21,55 ± 3.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점평균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평균 3.43 ± 0.62점을 총점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34.31 ± 6.23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 학년, 성별, 종교유무는 삶의 의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측정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삶의 의미를 보이는 점은 여학생들의 사춘기가 남학생에 비해 2~3년 빠르게 옴으로써, 빠른 신체적 발달에 따라 새로운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한 탐색기회를 빨리 갖게(Kim, 2004) 된 결과라고 사료되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삶의 의미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다. 기독교인 학생(M = 143.77)의 삶의 의미가 기타 종교(M = 133.87)를 가진 학생의 삶의 의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 중 기독교인이 56.5%로서 S시의 36.2% 학생들이 기독교 재단학교의 학생인 영향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독교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미요법 집단상담을 실시한 Choi(2000)의 연구에서는 의미요법 프로그램은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되었고, Cho(2000)의 연구에서도 의미요법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 영적안녕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분석을 할 수는 없으나 종교는 성숙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생을 깊게하고 풍부하게 하며 건전성과 행복에 기여한다(Kim, 2004)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한 Choi(2000)의 연구에서 의미요법을 적용한 신앙행동 및 신앙태도 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자기성장 프로그램만을 경험한 비교집단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보다 삶의 의미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고하여 삶의 의미 증진에 종교가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종교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추후에 반복연구 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의 종교유무 및 기간을 조사하여 신앙생활 기간에 따른 삶의 의미의 차이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지역,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특별시인 S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경북 G시와 강원 C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교육과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도 수준과 경쟁의식이 높아지는 현상(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확인됨으로, 사회·경제수준의 규모가 큰 특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능감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개념으로,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능력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아정체감 및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발견에 주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et al., 2006; Kim, Kim, Son, Song, & Jung, 2004). Maslow(1968)는 각 개인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 개인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경험

할 때 최적의 생동감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Cho(2000)는 의미요법 집단상담은 고등학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Kim(1995)의 연구에서도 20대 미혼여성의 삶의 목적,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감소에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령기 후기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경우 자신의 삶에 뚜렷한 의미나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경우 무가치, 무의미, 권태감 등 실존적 공허감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가 없어 같은 대상층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나 위에 제시된 보고와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삶의 의미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삶의 의미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에서 관계적 경험과 긍정적 태도 요인과 만족/희망 순으로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삶의 의미 증진 간호중재 개발 시에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해야 할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건강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연구이므로 초등학생의 짧은 집중력을 고려하여 그 외 삶의 의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삶의 의미와 상관성을 보이는 개념들 간의 관계관성 파악을 위한 반복연구가 수행되므로 삶의 의미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의미 영향요인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대상자의 종교 지역, 성별, 가정환경 관련요인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Lim과 Han(2004)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치관 형성 및 삶의 목적 발견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삶의 의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파악을 위한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지지하는 양육형태와 권위적이며 지시적인 부모의 양육방식 즉 양육형태와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등 가정환경관련요인이 추가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자기개념 또한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자기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는 관점으로 자신에 대해 갖는 자아상, 태도, 감정들의 독립적인 형태를 의미한다(Kim & Lee, 2004). 영아기부터 형성되어온 긍정적인 자기 개념은 학령기에 들어와서 아동에게 내면적인 자아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아존중감과 연결된다. 긍정적인 자아평가를 하는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고, 평가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될 때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또한 Cho(2000)의 연구에서도 의미요법 집단상담을 받은 실험군 청소년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개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인 S시, 강원도 C시, 경북의 G시에 있는 초등학생을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전체 초등학교 고학년 생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확률표출법에 의해 대단위 연구를 통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 정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난 점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 학령기 아동의 삶의 의미를 높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성별, 학년 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삶의 의미 증진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도시와 중도시의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기 후기 아동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4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삶의 의미는 Kang et al(2007)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4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u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수정한 10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43 ± 0.62점, 삶의 의미 정도는 평균 3.07 ± 0.38점으로 나타 모두 보통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 정도의 차이에서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지역($F = 16.626$, $p = .000$), 종교($F = 2.780$, $p = .04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삶의 의미는 대상자의 지역($F = 9.975$, $p = .000$), 성별($t = 20.136$, $p = .000$), 학년($F = 11.199$, $p = .000$), 종교($F = 4.400$, $p = .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의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r = .553$, $p = .000$)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삶의 의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강화 전략방안과 가족과 친구와의 사랑과 의미있는 관계를 증진하고 구체적인 장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 성별, 학년 등은 삶의 의미의 영향변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할 수 있도록 확률표출법에 의한 대단위 조사를 시행하여 삶의 의미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 삶의 의미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의미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REFERENCES

Cho, S. W., Kim, H. J., Lee, Y. N., Lee, J. W., Cho, Y. J., & Hu, M. S. (2003). *Understanding of Human Relationship and Adolescents.* Seoul : Yangji Publishing Co.

Cho, H. S. (2000). *The effects of logotherapeutic group counseling on purpose in life, self-concept,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Choi, M. O. (2000). *The effects of logotherapy group counseling on the purpose in life and a life of faith of christian teenag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Busan.

Frankl, V. E. (1988).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Rev.ed.). New York: Penguin.

Han, S. C., Choi, A. M., & Park, S. H. (2004). *Adolescent psychology.* Seoul : Yangsuewon Publishing Co.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7-129.

Kang, K. A., Im, J. I., Kim, H. S., Kim, S. J., Song, M. K., & Sim, S. Y. (2009). The effect of logotherapy on the suffering, finding meaning, and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ts with terminal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5*(2), 136-144.

Kang, K. A., Kim, S. J., Song, M. K., Sim, S. Y., & Kim, S. H. (2007).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meaning of life (MOL) for higher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3), 308-317.

Kim, S. Y. J. (2004). *Growth · Development and Nursing in Adolescents.* Seoul : Soonmoonsa.

Kim, J. B., & Han, J. C. (2001).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s sub-groups.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3*(2), 207-219.

Kim, H. S., Kang, K. A., Kim, S. A., Kim, S. J., Kim, H. S., Kim, H. O., et al. (2006). *Child Health Nursing.* Seoul: KoonJa Publishing Co.

Kim, J. H., Kim, H. J., Son, E. K., Song, Y. S., & Jung, I. S. (2004).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Dongmoon Publishing Co.

Kim, N. Y., & Lee, S. H. (2004).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counseling.* Seoul: Dongmoon Publishing Co.

Kim, Y. H.(1995).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based on logotherapy on the level of the purpose in life, the self-esteem and the decreasing of the stress of unmarried females in their twen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The 2nd (2006) annual report of youth behavior risk factor online serveillance statistical.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 *Adolescence.* Seoul: YangSueWon Publishing Co.

Lee, I. S. (2005). Drin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rural commun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Public Health Nursing, 19*(2), 349-358.

Lim, Y. S., & Han, S. C. (2004).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 psychology.* Seoul: Hakmoon Publishing Co.

Maslow, A. H. (1968). *Towards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 Van Nostrand.

Oh, J. N., & Lee, J. Y. (2004).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esting of a program to promote self-esteem for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0*(4), 460-467.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HJ: Penguin Books.

Song, M. R., Ahn, H. Y., & Kim, E. K. (200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8*(2), 141-151.

Sung, M. H. (2005). Relationships between BMI, eating disorders, physical symptoms and self-esteem among fifth grade and six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1*(3), 282- 289.

Yoon, Y. M., & Park, H. M. (2006). Personal and environmental predictors of internet addiction i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2*(1), 34-43.